

# 누가 위서를 만드는가

위서(僞書)의 사회사 — 1

김삼웅 | <대한매일> 주필

사회가 혼란할 때면 어김없이 위서가 나타나 위기의식을 부추기고 새로운 시대를 예언했다. 우리 역사에도 위서는 많았다. 아직도 진위를 놓고 논쟁이 계속되는 《화랑세기》나 《규원사화》가 대표적인 예다. 특히 각 왕조 교체기에는 각종 참서가 나돌아 집권세력을 괴롭혔다. 익명성을 무기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탓에 위서는 정쟁의 불씨가 됐다. 정부차원에서 금서조치를 내려 유통을 막았지만, 효과는 별로 없었다.

인간이 문자를 사용하면서부터, 아니 상형문자 시절부터 위서(僞書)가 나타났다. 사전은 위서를 ①가짜 편지 ②위본(僞本) ③위조문서 ④남의 필적을 훔내 내어 씌 등으로 풀이한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위서가 있었고, 지금도 그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채 논쟁이 계속되는 서책도 있다. 《화랑세기(花郎世紀)》나 《규원사화(揆園史話)》가 이런 경우라 하겠다. 이 책들처럼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내용이 위작인 것도 적지 않다.

문자의 발명이 문명사를 발전시켜 왔지만 문자가 순기능만 해온 것은 아니다. 어느 시대나 각종 위서가 생기고 궤서(掛書)나 참서(譏書)가 사회를 혼란시키는가 하면, 위작(僞作)이나 이본(異本)도 적지 않았다. 부적(符籍)이나 참요(譏謠) 같은 것도 큰 영향을 끼쳤다. 요즘도 정가나 증권가에는 각종 괴문서가 나돌아 정치적 파문을 일으키고 주가를 조작하는 데 동원된다. 선거 때나 인사철이면 관가에는 라이벌과 예상 인사를 증상하는 투서가 나돌고, 정략차원에서 지도자를 음해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건도 나타난다.

## 위서의 유형과 전통

국내의 일만도 아니다. 일본은 옛부터 한국사를 왜곡하는 각종 사서(史書)를 만들고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임나일본부설'의 날조나 '광개토태왕비' 조작, 그리고 3·1

운동 당시 이를 왜곡 날조하는 각종 빠라·벽보 등 온갖 '가짜 글'을 생산했다.

'위서'로 통칭되는 '가짜 글'은 곡필과는 다르다. 곡필이 진실을 왜곡해 쓴 기명의 글이라면 위서는 그야말로 그럴 듯하게 가짜를 만드는 글이다. 기명의 경우도 있지만 무기명 또는 가명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곡필이 필자나 저자를 밝힌 데 비해 위서나 비기(秘記)·참서·궤서·투서 따위는 익명으로 나타난다. '익명'이기 때문에 그만큼 진실성이 떨어지고 허위가 보태진다.

요즘 인터넷에서 볼 수 있듯 '익명'의 글이 얼마나 과격하고 문란한 내용인지 알게 된다. 조선 왕조 때에는 각종 궤서와 투서가 관가의 벽이나 시장터 또는 큰길가·주막에 나붙었다. 국가에서 엄격하게 다뤘지만 궤서나 투서가 그치지 않았고 정쟁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신라 말기부터 나돌기 시작한 각종 참서는 역성혁명의 도구가 됐다.

고려시대의 이(李)씨가 왕이 된다는 '십팔자(十八子) 설'이나 조광조를 제거할 때 이용된 '주초위왕(走肖爲王) 등과 같은 파자(破字)를 통한 위서가 유행하기도 했다. 《정감록》과 각종 풍수도참서 그리고 여러 형태의 비기가 황당무계한 내용으로 나돌아 인심을 휘젓고 사회를 혼란시켰다.

## 고서의 진위 식별법

동양의 위서는 중국에서 시작된다. 그만큼 위서

의 역사는 길고 복잡하다. 고서(古書)를 극히 좋아하는 옛 중국사회에서는 각종 위서가 나돌아 그 진위를 가리는 작업도 활발하고, 이것이 학문적 가치로 인정받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옛부터 고서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옛날에 있었던 예문지(藝文誌)와의 대조 ▲예문지에 기록됐으나, 후지(後誌)에 기록되지 않은 것 ▲예문지의 것과 권(卷) 편수의 대조에 나타난 차이점 ▲예문지의 것과 저자 이름을 대조한 결과의 차이점 ▲주석자(注釋者)의 위서평 유무 ▲후인의 방증 ▲발간시에 위작 여부를 짐작 ▲책 내력의 애매 등을 들었다.

양계초는 위서 식별 및 연대 고증의 여덟가지 방법을 <고서의 진위와 그 연대>에서 제시한 바 있다.

1. 칠략(七略)을 조사함으로써 그 근원(源)을 보고,
2. 여러 예문지를 조사함으로써 그 계통(緒)을 보고,
3. 동시대의 저서를 조사함으로써 그 통합성(覈)을 보고,
4. 이(異)시대의 저서를 조사함으로써 쫓음(述)을 보고,
5. 문장을 조사함으로써 그 체제(體)를 보고,
6.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그 시대성(觀)을 보고,
7. 저자를 조사함으로써 그 의탁(托)함을 보고,
8. 전수한 자를 조사함으로써 그 인물(人)을 본다고 했다.

이 여덟가지를 조사하면 고금의 위서는 숨김없이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양계초는 이와 관련, 전수 및 통서(統緒)에 대한 식별과 문의(文義) 및 내용상에 대한 식별을 구분했다.

고래로 위서의 종류는 다양하다. ▲전부가 위작인 경우 ▲일부가 위작인 경우 ▲본래 없는 책을 위작해 내는 경우 ▲일찍이 그 책은 있었으나 중간에 잃어버려서 위작한 경우 ▲내용은 모두 위작이 아니나 책 이름이 위작인 경우 ▲내용은 모두 위작이 아니나 책 이름과 사람 이름이 위작인 경우 ▲내용 및 책 이름은 위작이 아니나 사람 이름이 위작인 경우 ▲고서를 표절해 위작하는 경우 ▲위작을 또 위작해 내는 경우 ▲위서에 더 보태는 위서의 경우 등이다.

양계초는 중국에서 위서가 생겨난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옛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유학에서 옛을 좋아했으므로 후인들은 고서를 보게 되면 대단히 귀중한 것으로 여겼다. 책은 옛것일수록 더욱 귀중한 것이 있으니 만약 후인들이 만든 것이라면 도리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다. 연대가 확실치 않은 책들을 그 가치를 높이고자 고대로 올리고 저자가 분명한 책들도 고인의 이름을 빌어 스스로 높였다.

둘째, 인쇄술이 발명되지 않아서 책을 읽으면 사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고, 사본은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그러므로 좋은 책을 얻게 되면 남에게 보여주지 않고 비밀리에 간직했다. 비밀이 될수록 위작의 여지가 많아진다.

셋째, 잦은 전란으로 서책이 소실되기 십상이었다. 큰 난리 뒤에 서적의 망실은 크고 국가는

보충하기에 급했으므로 진위에 엄격할 수 없었고 상금을 주면서 도서를 모집해 위작의 기회를 줬다.

넷째, 비본이 우연히 발견되는 것에 부회해 고분이나 동굴·땅속에 묻혀 있는 것처럼 가장해 위서를 만들었다.

### 사회혼란 틈타 번성하는 참위술수서

신라말기부터 도선(道詵)이 쓴 것으로 알려진 《도선비기(道詵秘記)》를 비롯해 각종 참위술수서(讖緯術數書)가 나돌았다. 신라말에서 고려초에 특히 심했으며 고려말과 조선초기에도 극심했다. 사회가 혼란할 때면 어김없이 참위술수서가 나돌아 위기의식을 부추기고 새로운 시대를 예언했다. 정부에서 단속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조선왕조 초기에도 여러 참위서가 비밀리에 나돌아 집권세력을 괴롭혔다. 각종 비기가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건국초기에는 친체제적인 여러 종류가 나돌았으나, 조선왕조가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반이조적(反李朝的)이고 반왕조적인 내용으로 변모돼 갔다. 조선왕조가 유교 국가를 지향하자 불가 또는 도가에서 이 비기를 이용해 반유가적(反儒家的)인 비기들을 조직적으로 유포했다. 권력싸움에 동원된 것이다.

각종 비기와 도참설이 나돌아 사회가 불안하고 민심이 들뜨기 시작하자 조정은 비기에 대한 일대 단속에 나섰다. 세조 3년(1459)에 8도 관찰사에게 《자고조선비사(自古朝鮮秘詞)》《지공기(誌公記)》《도증기(道證記)》《동천록(動天錄)》 등 19종의 서적을 금서로 정해 단속령을 내렸다.

이들 서책을 개인이나 관청·사찰에서 소장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소지자에게는 신고를 명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한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이때의 금서가 모두 위서는 아니었다.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위서(위작)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옛것에 가탁(假託)하기 위함이다. 옛 사람의 명성에 의지해 자기 주장을 펼치려는 것이다.

둘째는 상이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다. 위서를 만들어 성공하면 벼슬도 하고 추종자도 생기는 등 실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셋째는 공명심이다. 식견이 얕거나 지명도가 낮은 학자(선비)가 위서를 통해 허명을 얻고자 함이다.

넷째는 타인을 음해 또는 모함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정치적, 정파적 음모에 동원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위서나 위작이 나도는 사회는 건전하지 못하다. 언로가 보장되는 민주사회는 자신의 의견(글)을 떳떳하게 밝히고 책임지는 체제다. 그럴 때 비로소 위서나 위작은 설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코스닥에 「다음」이 있다면 디자인에는 「다름」이 있습니다

## 디자인의 상한가 다름이 치겠습니다

뉴 밀레니엄 시대에는 디자인이 리드합니다. 제대로 된 디자인을 만나지 못하면 하한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한가로 올라가는 노하우, 다름에 있습니다.

**다름기획** 121-22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95-1번지 5층  
TEL. 325-6260~1 fax. 325-0944  
E-mail. darumman@uriel.net, darumman@hotmail.com

출판디자인의 모든것 북디자인 (단행본 · 학습지 · 잡지 · 사내외보), 광고, 홍보물(카탈로그 · 브로슈어 · 패키지 · P.O.P · 포스터 · 캘린더), 일러스트